

한국형 전투기 KF-21, 날아오르다

개발 후 첫 비행시험 성공
2015년부터 2028년까지
인니와 공동 연구·개발
2026년부터 120대 생산



19일 오후 4시55분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이 시험비행을 위해 경남 사천공항 활주로를 이륙하고 있다.

국산 한국형 전투기 KF-21이 19일 개발 후 첫 비행에 성공했다. 방위사업청은 "2022년 7월 19일 16시 13분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의 최초 비행을 성공했다"고 밝혔다. KF-21 시제 1호기는 경남 사천 공항에서 오후 3시40분 이륙해 4시13분 착륙했다. 한국형 전투기 통합시험팀 소속 안준현 소령(공군 제52시험평가전대 시험비행 조종사)이 조종간을 잡았다. 방위사업청과 제작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지난해 4월 시제 1호기 출고 이후 지상 시험을 해왔다. 지난 달 최초비행 준비검토회의(FFRR) 등을 거쳐 이날 최초 비행이 이뤄졌다. 향후 KF-21은 2000여대에 달하는 비행 시험을 통해 비행 영역을 확장한다. 각종 성능과 공대공 무장 적합성 등이 확인되면 2026년 체계 개발이 종료된다. KF-21은 F-4, F-5 등 공군 노후 전투기를 대체할 국산 전투기다. 추가 무

장 시험(블록-II)은 2026년부터 이뤄지며 2026년부터 2032년까지 KF-21 120대가 생산된다. KF-21 사업은 2015년부터 2028년까지 8조8000억원을 투자해 공군 장기 운영 전투기(F-4, F-5)를 대체하고 기반 전력으로 활용할 전투기를 인도네시아와 공동 연구·개

발하는 사업이다. 방위사업청은 "4.5세대 첨단 전투기의 국내 개발능력이 첫 비행으로 실현되는 순간"이라며 "한국형 전투기 개발 성공에 한 단계 더 가까워지면서 국내 항공기술의 새로운 도약과 첨단 강군으로의 비상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뉴시스

“지역안전지수 최하위등급 시·군 개선율”

도의회 상임위 첫 업무보고

전북도의회(의장 국주영)는 19일 제393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각 위원회별 첫 업무보고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먼저, 문화건설안전위원회(위원장 이병도)는 도민안전실과 건설교통국, 전북개발공사, 전북도교통문화연수원의 2022년 하반기 업무보고를 받았다. 위원회별 발언으로는 이병도 위원장(전주)의 '지역안전지수 최하위등급 시군 개선', 양혜석 의원(남원)의 '민방위 대피시설 홍보 필요성' 등의 발언이 나왔다. 이어,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이재)는 기획조정실 등의 업무보고를 청취한 뒤 상반기 주요 성과를 면밀히 살피고 이를 바탕으로 하반기 목표 달성률과 보완점 등을 질의했다. 질의 내용은 김이재 위원장(전주)의

'도 산하기관 임금피크제 조사', 강태창 부위원장(군산)의 '하이퍼튜브 종합시험센터 부지유지 동의안', 송승용 의원(전주)의 '정무특보의 행정사무감사 불이행 이유' 등을 질의해 행정의 빈틈을 살폈다. 이와 함께, 농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나인권)는 전라북도 농축산식품국, 농업기술원, 전북 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등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나인권 위원장(김제)은 '농업인의 용자금 상환 유예대책', 최형열 의원(전주)은 '농가소득 감소 문제', 권요안 의원(완주)은 '로컬푸드 실태조사' 등 농가의 수입증대를 위한 방법을 강구했다. 아울러, 교육위원회(위원장 김명지)는 류정섭 부교육감을 상대로 정책질의를 실시했다. 진형석 의원(전주)은 '부서장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공개', 이정린 의원(남원)은 '학교 공동

체익성 형성 방안', 한정수 의원(익산)은 '새 교육감의 로드맵 마련' 등의 질의로 전라북도의 교육정책에 대한 문제점들을 알렸다. 마지막으로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이병철)는 복지여성보건의 등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병철 위원장(전주)은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의 취지 퇴화에 대해 질의했다. 임승섭 의원(정읍)은 '복지여성국의 사회복지와 정월미달', 김민기 의원(고창)은 '도내 지적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사업 보조금 부담 청구 의혹'에 대한 지도감독 여부를 질의해 복지분야 정책의 아쉬움을 질의했다. 한편 이번 회기는 실국별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2022년도 전북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와 현지의정활동 등이 오는 8월 1일까지 예정돼 있다. /김경수 기자

“사고지구 돼 분열 잘 추스르고 통합”

민주 임순남 지역위원장
경선서 박희승 선출



더불어민주당 사고위원회로 분류돼 경선을 진행한 전북 남원·임실·순창 지역위원장에 박희승 전 지역위원장이 확정됐다. 민주당 전북도

당은 남원·임실·순창지역위원장에 박희승 전 위원장이 선출됐다고 19일 밝혔다. 박 전 위원장은 18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권리당원 경선 투표 결과 60.49%의 득표율을 얻어 이환주 전 남원시장(39.55%)을 여유있게 따돌렸다. 박 전 위원장은 "우리 지역이 사고 지구당이 되면서 많이 분열됐다.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탈당한 사람도 많고 여수선한테 잘 추스르고 통합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총선 출마와 관련하여는 "도전하겠다"는 입장을 의사를 드러냈다. /뉴시스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KF-21, 2026년까지 비행 시험

시제기 6대가 약 2000여회에 걸쳐 비행
미티어 미사일 이어 공대지 미사일 개발

국산 기술로 개발한 한국형 전투기 KF-21이 19일 첫 비행에 성공했다. 비행 시험은 2026년까지 계속된다. 이날 첫 비행을 시작으로 2026년까지 시제기 6대가 약 2000여회에 걸쳐 비행한다. 통합시험팀(CIT)과 공군 개발업체 등이 비행을 주관한다. 시험 비행 조종사는 공군 조종사와 체계 개발 주관 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 조종사가 공동으로 맡는다. 비행 시험 때 확인할 내용은 항공기 안전성 확인, 고도·속도·기동 능력 확장, 비행성능·조종 특성·항공전자·세부계통 검증, 중거리·단거리 공대공 무장 분리·발사시험 등이다.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은 내년 후반기에 내려지고 사업 종료일은

2026년이 될 예정이다. 추가 무장 시험(블록-II)은 2026년부터 이뤄진다. KF-21은 이번 첫 비행 때 미티어(METOR) 공대공 미사일 4발을 장착했다. 미티어 미사일은 영국·독일·이탈리아·프랑스·스페인·스웨덴 등 유럽 6개국이 개발한 무기다. 미티어 미사일은 속도가 마하 4.5, 사거리가 200km 이상이다. 아시아에서 미티어 미사일을 쓰는 것은 한국이 최초다. KF-21에 장착될 공대지 미사일은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ALCM) 2차 사업을 통해 국내에서 개발된다. 이 미사일은 적의 대공 위협 지역에서 벗어난 원거리에서 전략 표적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공중 발사 순항 미사일로 개발된다. 군은 기존의 초음속 미사일(마하 2.5)보다 2배 이상 빠른 극초음속 미사일로 KF-21에 장착할 계획이다. /뉴시스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 노력”

나인권 도의원, 축하화분 아름다운 가게 기증

전북도의회 나인권 의원(김제1, 더불어민주당)이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당선 축하 화분을 아름다운가게 전북본부에 기증했다고 밝혔다. 18일 나인권 의원은 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실에서 사회계 기업인 아름다운가게 전북본부의 김진형 공동대표와 신은찬 본부장에게 화분 30여 개를 전달했다. 이번 화분기증은 나 의원이 제12대 도의원과 전반기 농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에 당선된 이후 지인과 각계각층으로부터 받은 축하 화분을 의미있게 활용함으로써 지역사회 나눔 문화를 확산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아름다운가게 전북본부는 기증받은 화분을 도내 6개 매장에서 판매하고 수익금 전액을 소외받는 이웃에게 전달한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전북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해 달라는 의미에서 축하 화분을 보내주신 분들께 보답하고자 소외계층 돕기 물품으로 전달했다"며 "비록 적은 물질이지만 어려운 이웃에게 힘이 되길 바라고 앞으로도 전북지역에 나눔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거듭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경수 기자



순창군의회 임시회 개최

순창군의회(의장 신정아)는 19일부터 27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270회 임시회를 개최해 2022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부서별로 보고 받는다. 신정아 의장은 "채로 출범한 제2대 순창군의회에 대한 많은 관심과 기대를 보여준 군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라며 "앞으로도 군민의 뜻을 받들어 군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순창군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km²,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

전주매일 캠페인